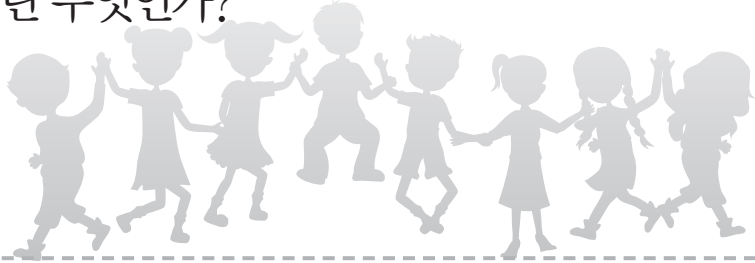


영재성이란 무엇인가?



메리랜드 주에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의 공립 학교들은 2008년 12월, 영재라는 명칭을 삭제하기로 했다(De Vise, 2008; Stabley, 2008). 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영재라는 명칭이 없어진다 해도 영재교육은 학교 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모든 학부모들이 만족하지는 않았다. 한 학부모는 영재교육을 지지하는 메일에 “몽고메리 학교 관계자들이 영재라는 명칭을 삭제하면 영재학생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라고 썼다.

그 이유가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겠으나 학교 당국이 이렇게 결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첫째, 몽고메리 카운티에 사는 학부모들은 대부분 자기 자식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가 영재로 뽑히지 않은 것에 기분이 상했다.

둘째, 몽고메리 카운티의 학교들은 매우 경쟁적이다. 그 지역 학교들은 국내외에서 유명하고 학생들은 이런 압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다. ‘영재’라는 명칭을 없애으로써 경쟁적이고 분리된 분위기를 완화하려 했는지도 모른다.

셋째, 몽고메리 카운티는 모든 학생들이 영재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학생이 같은 교육을 받는다면 따로 명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 영재탐구

진정 ‘영재’라는 명칭이 필요한가? ‘영재’란 무엇을 뜻하는가? 웨슬러 아동지능 검사(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 WISC)에서 상위 1% 안에 든 학생이 100m 달리기에서 상위 1% 안에 든 학생보다 ‘영재’라고 불릴 확률이 높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국가 제일로 손꼽히는 물리학자는 영재이고, 최고의 은행 강도로 FBI 리스트에 오른 사람은 영재로 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문화권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영재이고, 다른 문화권에서는 북 치는 사람, 또 다른 문화권에서는 학생이 영재로 인식될 수 있다. 처음의 두 문화권에서는 정식 교육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 문화권에서는 사냥하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영재를 지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재 선별을 위한 펜타고널 이론

우리는 영재성을 이해하기 위한 다섯 가지 기준이 있다고 제안한다. 이를 ‘펜타고널(pentagonal)’ 이론이라고 한다(Sternberg, 1993; Sternberg & Zhang, 1995). 펜타고널 이론을 자세히 보기로 한다.

탁월성 기준

탁월성 기준은 개인이 또래와 비교해서 한 분야 혹은 여러 분야에서 탁월성을 보이는 것을 뜻한다. 영재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서 탁월해야 한다. 얼마나 탁월한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영재’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는 기준에서는 창의성, 지혜 혹은 다른 기술이나 구인에서 능력이 풍부하거나 뛰어난 것으로 본다. 현재의 개념에서 또래에 비해 탁월한 것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또래에 비해’라는 제한이 필요한 것은 10살 된 아동의 지능검사 결과가 다른 10살 아동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지만 5살 많은 아동들에 비해서는 평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4세부터 음악 학교에서 특별 교육을 받아 온 8세 아동과 학교 음악 시간에 재능을 보이는 8세 아동은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영재’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다. 몽고메리 카운티의

학교 관계자들이 말하듯 모든 학생이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논지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탁월성에 있어 개인차가 없다는 논지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키, 몸무게, 음악적 기술, 운동 재능 등 모든 것에는 개인차가 있다. 이러한 개인차는 무엇을 뜻하는가?

첫째, 개인차가 있다고 해서 변동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거의 모든 개인차는 변동이 가능하다(Sternberg, 1997a). 영재교육이라 해서 모든 학생들이 한 번 정해진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영재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은 학습을 하면서 개인적인 발전 패턴이 변한다(Sternberg & Grigorenko, 2001a, 2002a). 그러므로 영재를 선발할 때는 어떤 과제를 어떤 상황에서 해결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수학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아무도 개인차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내지 못했다.

셋째, 개인 내적 그리고 개인 간 편차도 있다. 어린 나이에 어떤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고 해서 나이가 다른 그 분야의 일인자와 같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6학년 때 수학 왕이었어도 삼각법을 배울 때쯤에는 수그러들 수 있다. 또한 삼각법을 잘하던 사람이 복잡한 수학 증명을 할 때는 평범한 수준만을 보일 수도 있다.

끝으로, 탁월성이란 우리가 명명을 하든 하지 않든 그 개념과 현상이 존재한다. ‘영재’라는 명칭을 없애더라도 영재성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오웰의 1984나 클라크의 도시와 별과 같은 반유토피아 소설에서는 정치인들이 대중을 균일화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정치인, 교육자, 혹은 그 누군가의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적 요구도 다를 것이다. 단어나 언어를 바꾸어도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 각 개인의 교육 요구를 충족해 줘야 할 것이다.

희소성의 기준

희소성의 기준에서 볼 때, 영재라고 하기 위해서는 또래들에게 흔하게 나타나지 않는 특성이 있어야 한다. 희소성의 기준은 탁월성의 기준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어떤 영역에서 뛰어나다 해도 그 영역에 희소성이 없으면 영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일류 대학 졸업반 학생들에게 영어 시험을 치게 하면 아마도 거의 다 만점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 학생들이 다 영재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탁월성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영역에 희소성이 없으면 영재라고 할 수 없다.

Flynn(1987)은 IQ 검사 점수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출판사들은 계속 IQ 100이 평균이 되도록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다. 평균 수준이 높아진다 해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은 수준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높거나 낮은 수준의 사람들은 평균 수준의 사람들과는 다른 교육적 요구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누구든지 너무 쉬운 내용이라 지겨웠거나, 너무 어려워서 알아듣지 못한 채 교실에 앉아 있어야 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결국 '영재'의 수준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수의 탁월한 자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학점 인플레이션은 어찌 보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 혹은 학점 인플레이션이 진정한 의미로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더불어 교사들이 개인차를 구별해내는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에게 A학점을 주고, 모두에게 IQ 180을 준다 해도 그 분표의 최상위권에 영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생산성의 기준

생산성의 기준은 탁월하다고 평가받은 분야에서 생산적인 활동 혹은 산출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인 대회를 예로 들어 보자. 미인 대회 참가자들이 외모로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사나 재능에 대한 질문들까지 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외모가 가장 큰 요인인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대회가 미(美)를 보는 것이지만 아름다움 자체가 생산적인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참가자는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대조적으로 과학 대회 참가자들은 다른 측면(예 : 외모)은 보여 주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과학적 업적 자체가 생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생산적 기준은 누가 영재로 정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학자들은 지능지수(IQ)가 높은 것만으로는 영재라고 정의될 수 없다고 한다. 지능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보여주지 않으면 그 검사는 의미 없다고 본다(Gardner, 1983).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지능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 자체가 성취를 보인 것이라고 인정한다. 적어도 잠재력을 보였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아동기에는 산출물이 없어도 영재라고 불릴 수 있다. 실제로 아동은 산출물보다는 잠재성으로 선별된다. 그러나 성장해 가면서 잠재력보다는 실제 산출물에 무게가 실린다. 많은 영재 아동들이 특출하지 않은 어른으로 성장한다. Renzulli(1984)는 이러한 사람들을 ‘학교 안의 영재’라고 부른다.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산출물도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재능을 꽃피우지 못한 영재라고 부를 수도 있다. 하지만 ‘영재’라는 명칭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성취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책에서 우리는 산출물, 적어도 잠재적 산출물을 영재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지 지능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만으로 영재라고 하기에는 영재라는 개념을 너무 축소시키는 것이라 보는 입장이다. 높은 IQ 점수를 받은 것만으로 모인 집단을 보면,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 내놓을 게 높은 IQ 점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들은 IQ만으로 영재라 하는 것은 매우 협소하다는 생각이다. 진정한 영재는 지적이고 생산적이어야 한다. 바깥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단지 추상적인 의미로 지적이 기만 한 것은 소용없다.

증명 가능성 기준

증명 가능성 기준이란 어느 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사람은 신뢰도 있는 검사에서 그 능력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 사람이 영재로 선별된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영재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여러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재로 보기 어렵다.

이때 사용되는 검사 도구(들)도 물론 타당도가 있어야 한다. 타당하다는 것은

각 검사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측정하고 있는가를 뜻한다. 만일 어떤 지능검사에서 i 의 점을 잘 찍었는가를 보고 높은 점수를 준다면 그 검사의 결과는 타당성이 매우 낮은 것이다. i 에서 점을 잘 찍는 것은 지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예로 취업 인터뷰를 할 때 지원자가 매우 설득력 있게 자신의 연구 능력에 대하여 피력하였다 하더라도 대화 중에 아주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을 못한다면, 그 지원자는 자신의 생각보다는 지도 교수나 학원 등에서 가르쳐준 대로 외워서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취질 것이다. 이때의 취업 인터뷰는 지원자의 진정한 실력을 알아보는 데 타당한 수단이 되지 못한 것이다.

최근 들어 선별 방법의 타당도에 대한 논쟁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과거에는 많은 학교들이 표준화된 지능검사나 학교 성적만으로 지적인 영재를 선별하는 데 만족했었다. 그러나 산출물이나 성과를 보는 것으로 초점이 옮겨지면서 전통적인 검사만으로 영재를 선별하는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생겼다 (Gardner, 1983; Renzulli, 1986). 과거에 지능검사 결과만으로 영재로 판별되었던 사람이 현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사람들이 인식하는 영재의 개념은 그대로일 수 있겠으나 타당하게 증명된 영재성의 개념은 변한 것이다.

가치의 기준

가치의 기준이란 어느 사회에서 가치를 두는 분야(영역)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사람을 영재라고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FBI에서 지명수배 1위인 사람은 하나 혹은 여러 측면에서 매우 특출하고 생산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잘하는 일들이 사회에서 가치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회에서는 그를 영재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물론 도둑 집단에서는 그를 영재라고 부를 수도 있다. 펜타고널 이론에서는 다른 문화권, 혹은 하위 문화권에서 가치를 두는 요인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영재성을 판단할 자격이 있는걸까?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암묵적 이론이 다 훌륭한 것은 아닐 것이다. 펜타고널 이론은 다른 장소나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영재성에 대해 잘못 평가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암묵적 이론은 상대적인 것이 특성이다. 사람들의 가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묵적 이론은 영재를 판별하는 데

가장 적절한 구조를 제공한다.

지능에 대한 암묵적 이론의 근간이 되는 가치의 기준에 대해 생각해보자. 많은 학교들이 1세기 전에 썼던 기준을 지금도 쓰고 있다. 예를 들어 수리적 계산 능력은 2010년보다는 계산기나 컴퓨터가 보급되기 전인 1960년대에 더 중요했다. 우리가 영재성을 측정하는 기술도 바뀌었다. 2장에서는 오늘날 영재성을 판별하는데 유용한 모델을 제시하도록 한다.

펜타고날 이론의 시험

펜타고날 이론은 영재성에 대한 사람들의 암묵적인 이론을 정리해보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그 목적이 달성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Sternberg & Zhang, 1995). 대학생과 영재의 부모들에게 아동에 대해 묘사한 정보를 주었다. 그 정보를 보고 그들에게 1. 이 아이가 영재 같은지, 2. 학교가 이 아이를 영재라고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도록 했다. 제시된 정보는 가상의 학생과 가상의 검사를 고안한 것이다.

1. 지현이의 베이더 창의성 검사 점수가 좋았다.
2. 그 점수는 학교에서 상위 20% 이내에 든 것이다.
3. 베이더 창의성 검사는 학생들의 40%에게서 영재 수행 능력을 예측했더니 정확했다.
4. 학교는 베이더 창의성 검사가 영재성을 측정하는 데 정확성을 보통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5. 지현이는 4개의 개인 프로젝트를 제출했다.
6. 학교는 개인 프로젝트가 영재성을 측정하는 데 탁월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이 묘사는 소년, 소녀 모두에게 동일하였고, 단지 이름만 바꾸어 절반에게는 지현, 나머지 절반에게는 지훈이라고 제시됐다. 또한 60개의 묘사를 3개의 다른 순서로 조합하여 제시된 순서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물론 모든 문항이 베이더 창의성 검사에 관한 것은 아니었고 각각 다른 검사와

관계가 있었다. 각 검사의 명칭은 달랐지만 창의성, 지능, 사회성, 동기, 성취의 다섯 가지 요인을 다루고 있었다.

두 집단의 결과는 꽤 명료했다. 다중회귀분석이라는 통계 방법을 써서 분석한 결과 모든 기준이 개인적 판단과 학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외적으로 논증 가능성만 개인적 판단에 영향을 주고 학교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논증 가능성은 중요하지만 학교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5개의 기준 모두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펜타고날 이론의 함의

영재교육 분야에서 나올 법한 질문에 대하여 펜타고날 이론의 함의를 생각해보자.

1. 아동 중 몇 퍼센트를 영재로 선발해야 하나?

우리는 마치 정답이 있을 것처럼 이 질문을 많이 받는다. 정답은 없지만 펜타고날 이론은 이 질문에 혼재되어 있는 개념들 두 가지로 분리하여 생각을 정리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우리는 상대평가를 하면서 희귀성과 탁월성을 혼동해서 쓰고 있다. 교사들은 알 것이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성취를 보이는 학년이 있는가 하면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수행이 낮은 학년도 있다는 것을. 절대평가는 우리가 탁월성과 희귀성을 혼동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영재를 선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평가의 원리로 생각해야 한다.

펜타고날 이론을 활용하면 탁월함에 대해 적정 기준으로 성취하고, 우리가 특별한 교육을 제공해줄 수 있는 정도의 퍼센트만 영재를 선발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의 능력 한계뿐만 아니라 특별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의 한계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우리는 탁월성과 희귀성을 독립적으로 생각해야 하며, 특별한 잠재력을 가진 모든 학생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희귀성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2. 영재를 선별하기 위해 어떤 구인이나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가?

펜타고날 이론에서는 영재를 선별하기 위해 정해진 하나의 구인이나 측정 방법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정의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한 개인이, 자기 자신 혹은 사회에 기여할 잠재력에 대해 가치를 둔다면 그러한 잠재력을 어떻게 측정하고 선별할 것인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영재를 위한 프로그램은 적절성에 있어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 가장 낮은 단계는 단순히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선별하는 것이다. 이것을 1단계라고 하자. 2단계에서는 좀 더 현대적인 이론이나 학자를 인용하며 권위를 세운다. 이 단계에서는 적어도 몇 가지 대안적인 입장을 고려하긴 했다. 3단계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 기존에 하던 방식이 비록 이론에 기반을 두지 않았음에도 왜 그 방법을 써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다. 4단계에서는 무엇에 가치를 둘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을 찾아내서 체계화시킨다. 4단계에서는 어떤 이론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이론이 강조하는 요인이 자동적으로 부각이 되고(예 : 그것이 지능이나 창의성인지), 그로 인해서 어떤 학생이 영재로 뽑힐 것인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안다. 과거에는 영재를 선발할 때 ‘무엇을 찾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3. 영재에게 이상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가?

펜타고날 이론의 관점에서 비추어 보면 영재들에게 최선의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제는 여러 가지 다른 특성을 갖게 된다. 하나의 정답이 없는 것이다. 이 때도 우리는 ‘무엇을 위한 최선인가?’라는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만일 빠른 학습 속도가 중요하고, 사회에 공헌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속진이 해답이 될 것이다. 또는 학습하는 것의 깊이와 관심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심화가 더 적절할 것이다. 둘 다 중요하다고 믿으면 적절히 섞어서 계획해야 할 것이다.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선별할 때의 가치는 동일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속진할 학생을 선발한다면 프로그램도 속진을 해야 한다. 무엇에 가치를 둘 것인가를 정하면 그것에 맞추어서 후속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영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은 정답이 없

기 때문이다.

결국 펜타고날 이론은 사람들이 어떤 학생을 ‘영재’로 보는가에 기본 틀을 제공해준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명시적 이론들이 그 틀을 채워나가는 것이다.

여전히 ‘영재’라는 명칭이 필요한가?

‘영재’라는 명칭은 사회에서 어떤 가치적인 기능을 한다. 그러나 그런 명칭의 활용에 대해서는 회의론을 가진다. 한 사람의 IQ 점수나 시험 성적만을 보고 영재라고 부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존의 영재라는 개념을 보면 단 한 가지 측면만을 고려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학업적인 측면이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업 관련 능력은 분명히 중요하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단지 시험 성적만이 중요한 것일까? 학교를 졸업한 후에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IQ 검사나 성취도 검사, 성적을 다시 보는 사람은 매우 적다. 그것보다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다른 사람들과 팀원으로도 활동하고, 동료와 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건강도 유지해야 한다. 학업적 성취도가 이때에도 중요할까? 분명 중요한 부분은 있다. 처방전을 읽어야 하고, 광고나 정치인의 진위를 판단하고, 경제적인 관리도 해야 한다. 그러나 학업 성취는 영재의 잠재력을 꽃피우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다른 기술들에 대해 알아본다.

영재에 대한 잘못된 신화

2009년도, *Gifted Child Quarterly*라는 권위 있는 저널에 영재교육의 신화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이 장에서 그 신화들을 들추어낸 사람과 신화의 잘못된 개념을 수정하고 정리해보도록 한다. 더 자세한 것은 원 기사를 참조하기를 바란다. 그들의 생각이 우리의 것과 같으므로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도입으로 그 내용을 소개한다. 원본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합쳤음을 미리 말해둔다.

1. 영재성이란 긴 시간동안 지속되는 비교적 동일한 특성이다(Reis & Renzulli, 2009a).

정정 : ‘영재성’은 한 가지가 아니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다.

2. 영재는 상위 3%~5%에 속하고 높은 IQ와 동일하다(Borland, 2009b).

정정 : 영재성은 단지 IQ로만 볼 수도 없다. 또한 인구 대비 정해진 백분율도 없다. ‘영재성’이란 사회적인 구인으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할 수 있다.

3. 영재 선발에 ‘확실한’ 방법이 있다(Callahan, 2009; Friedman-Nimz, 2009; Worrell, 2009).

정정 : 영재 선발에 있어서 모두가 동의하는 ‘정답’인 방법은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검사 결과는 없으며 다중 기준이 필요하다.

4. 창의성은 측정할 수 없다(Treffinger, 2009).

정정 : 창의성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어떤 것도 완벽하지는 않으나 한 개인의 창의적 기술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5. 영재를 가르치는 데 하나의 올바른 방법이 있다(Hertzberg-Davis; 2009; Kaplan, 2009; Sisk, 2009).

정정 : 영재를 위한 교육 방법은 개별화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각기 학습 스타일이 다르다.

6. 영재교육은 일반교육에 덧붙여질 수 있다(Adams, 2009; Tomlinson, 2009).

정정 : 영재교육은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되어야 한다.

7. 영재교육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영재들은 어차피 학습을 잘하기 때문이다(Gently, 2009; Moon, 2009; Robinson, 2009; Van Tassel-Baska, 2009).